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서두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언제 봄이 오는 지도 모를 정도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던 나에게 계절이란 그저 매일 떠오르는 해와 같았기에.....

하지만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고단함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마찬가지로 생동하는 봄이 있기에 겨울 추위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상적인 계절의 변화라 한들 일상에 깃들여있는 인생의 진리를 생각하면 가벼이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봄이 있기에 추위도 견딜 수 있는 것

어쩌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희망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보여주지 위함이 아닐까? 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사람들이나 따뜻한 아침식사를 만들거나 가게 문을 열거나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민들 모두 나름대로의 새해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도 소원이 있다. 요즘 영화 '부러

우리 사는 이야기

김지연(칼럼위원, 주부)



새봄을 기다리며

진 화살'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는 권위적인 사법부와 정의보다 정권유지에 힘을 쏟는 지배층들의 부정부패를, 실화를 각색하여 비판한 영화이다. 2012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당연히 자리잡아야할 민주주의를 논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부정부패의 척결이라 할 것이다. 아직 한국에 봄은 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올라가 보았다. 우중충한 도시 속에서 갇혀 살다가 움츠렸던 어깨를 다시 펴고 오랜만에 산과 들을 찾

아 나서면 저만큼 성큼 다가온 봄기운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부시다. 양지바른 곳마다 파릇파릇 어린 새싹들이 수줍은 듯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날씨가 영상으로 풀린 오후, 물이 오른 나뭇가지 사이로 문득 쳐다보는 하늘이 스산하고 음산했던 겨울 하늘과는 달리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가슴이 뻥 뚫리는 지혜를 배워야

사람의 마음속에도 겨울이 있다. 그러기에 더욱 간절하게 봄을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겠다. 진정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고단함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마찬가지로 생동하는 봄이 있기에 겨울 추위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처럼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하며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 사람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다른, 가슴이 뻥 뚫리는 지혜를 말이다.

유난히도 을씨년스러운 겨울이었다. 우리 집안도 그랬거니와 나라안팎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다.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 모두들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체일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고운 햇살과 함께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다.

이번 봄에는 나도 멋을 내보아야겠다. 겨울 내도록 입었던 험렁한 옷가질랑 던져 버리고 산뜻한 봄옷을 마련해야겠다.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이렇듯 돈 쓸 궁리만 하니 난 알뜰주부가 되긴 틀렸구나. 하지만 봄을 기다리며 부풀어 오르는 이맘을 주체할 길이 없다.

원광연 기자의 낱말 맞추기

Grid for word search puzzle with numbers 1-22.

가로열쇠 = 1. 건설행정, 도로시설, 지역개발, 농업기반 등을 담당하는 고성군부서, 김종우 과장 3. 침 맞으려면 이곳에 가야죠 5. 사람의 귀에 소리로 들리는 한계 주파수 이상이어서 들을 수 없는 음파 6.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8. 중심이 되는 힘. 00부대 9.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 10.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13.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14. 죽왕면 공현진에 있는 연못으로 현재는 갈대 등으로 뒤덮여 있다 16. 마찰 부분이 닳아서 없어짐 19. 모르는

니의 탄생일이다 7. 다듬어지지 않은 야성미 넘치는 남자다움을 뜻함 8.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9. 고래를 잡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갖춘 배 11.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을 비유 한 말 12. 조나 연못에 사육하면서 보고 즐기는 어류 15. 돈 있으면 무죄라는 뜻. 무전유죄 0000 17. 모시풀의 줄기껍질로 만든 실로 짠 피륙. 저마포 또는 저포라고도 한다 18. 정상 이 아님 20. 삼바축제, 월드컵 5회 우승, 커피가 유명한 나라.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부사어로 순 우리말 21. 형사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말. 0000의 원칙 22. 보너스

세로열쇠 = 2.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3.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 4. 원자핵의 붕괴나 핵반응의 경우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동력 자원으로 쓰일 때의 원자핵 에너지 5. 음력 4월 8일로 석가모

※낱말 맞추기 코너는 본지 원광연 기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넣고 싶은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681-1666)

※정답을 적어 <219-80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고성신문사 낱말맞추기 담당자 앞>이나 팩스(☎033-681-1668)로 보내주시면 1명을 추첨해 농협상품권(5천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도착한 정답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당첨자는 다음호 신문에 발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호(제49호) 정답 ●정답자: 제49호 정답자 없습니다.

Grid for word search puzzle with letters.